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험한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7월 3일 (토) 제 1832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 건국이념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

'2021 독립기념일 맞아 '자유'에 대한 보수주의적 이해와 가치 확대해야

올해로 245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은 '코로나부터의 독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그리 만만치 않다. 바로 백신 투여를 거부하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체가 재개방 분위기 속에 사실상 4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게 돼 지난 1년 4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인파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

은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미 전역에서 불꽃놀이 행사는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불꽃놀이 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수수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245주년 독립기념일은 과연 현재 미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에 정부가 도입됐고..." 미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와 같은 권리들, 즉 창조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기(보수하기) 위해 국가정부를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의 건국정신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현재가 좋으니 현상을 지키자"고 하는 수구주의자이거나, 혹은 "혁명 이전의 과거가 좋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반동주의자이다. 또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천천히 진보하자"는 점진주의자도 아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즉 미국인들의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을 신봉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유토피아적 인본주의 진보역사에 맞서서 성경과 양심 그리고 자연의 법이 증거 하는 창조질서를 지키고 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보수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윌리엄 버클리(William Buckley Jr.)가 미국 근대 보수주의를 정립한 '내셔널리뷰'를 창간하며 "보수주의자란 역사를 가로질러서 '스탑'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한편 '자유'는 사실 '1776의 자유'와 '1789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갈래가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1776의 자유'는 창조질서와 천부인권을 인정했던 '보수주의적 자유'를 의미한다. (3면으로 계속)



리더는 '휴브리스 신드롬'을 경계하라!

Harvard Business Review, '리더십 버블'에 갇히지 않는 대안 소개

'자존심'은 리더의 발목을 붙잡는 일종의 덫과 같다. 리더의 자존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쓴 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 리더일수록,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일수록 자존심이 세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일종의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세질 대로 세진 자존심은 어느새 오만함으로 리더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오만함이 가득한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전 영국 외무부 장관이자 신경학자인 데이비드 오웬(David Owen)과 미국 듀크대(Duke University) 정신의학과와 행동과학과 교수인 조나단 데이비슨(Jonathan Davidson)은 이와 같이 자존심이 세지는 현상을 '휴브리스 신드롬(Hubris Syndrome)'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 신드롬을 '일정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지도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라고 정의한다. 아무런 견제 없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 리더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오만(傲慢)'이라는 뜻을 가진 'hubris'라는 단어를 사용해 일종의 성격장애로 분류한 것이다.

자존심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존심은 리더 자신이 맞다고 믿고 싶은 내용에 대한 정보만 찾도록 만든다.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 체크하게 한다.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 공동체에 가장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리더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보는 소위 '리더십 버블(leadership bubble)'에 완전히 갇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게 돼 솔직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공동체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자존심은 좋은 리더십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Ego is the Enemy of Good Leadership). (3면으로 계속)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조직했으며, 국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국가든 이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미국독립선언문).

보수주의에게 '자유'는 '사상과 가치의 심장'과도 같다. 미국 건국 아버지들은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전통 아래 나라를 세웠다. 근대 혁명은 훗날 좌파의 전통이 된 프랑스 혁명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의 원조가 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나뉜다. 따라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바로 오늘날 보수주의자의 근원이다. 이 같은 정신이 잘 드러나는 게 1776년 발표된 독립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천부인권,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 잘못된 국가는 전복할 수 있다는 저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장치로 나온 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다.

"종교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건국 때부터 자유주의적 전통 아래 세워진 나라다. 결국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자유주의가 곧 민주주의'며 이 같은 정신은 지금까지 보수주의의 가장 근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자유를 강조하는 파운더스의 사상이 명확한 정치철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1743-1826) 때다. 그는 보수당의 원조인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연방주의를 반대하며 대신 각 주의 독립과 개별적 운영을 강조했다.

연방의 힘이 세지면 영국처럼 중앙집권적 권력이 탄생하고 이는 또다시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퍼슨은 "이상적인 정부는 가장 적게 간섭하는 정부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파운더스의 자유주의 정신은 훗날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제 폐지에 이른다.

유럽의 보수가 왕권과 귀족 신분을 보전하거나 변화를 "가능한 늦추려" 했던 것인 반면, 미국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1776년 독립선언문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됐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개혁의 명방울-조진모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JAMA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 2021년 7월 26일 - 8월 7일 (2주간-주일 제외)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발행인 칼럼

독립 선언서는 어디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믿기지 않았다. 열흘 전 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6월 24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타운의 12층 콘도형 아파트 한쪽이 완전히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은 지 40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마음이 아프다. 도대체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다. 사실 날벼락은 아니다. 이미 그 아파트의 안전 상태는 지적을 받았었고 이에 따른 신속한 보수(補修) 작업을 없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은 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연간 2mm의 침식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건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1:29:300 법칙'이 있다. 하인리히 법칙을 그렇게 부른다. 보험회사 관리감독관으로 수많은 사고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나오기까지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 당 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것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징후는 1:29:300의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으로 큰 사고 앞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된다고 한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확대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은 하인리히 법칙을 비껴가기 힘들다. 보다 근본적인 지적이 있다. 서프사이드 타운 일대는 모래와 진흙으로 구성된 사주(砂洲) 섬이기에 건물을 올리기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곳이었다는 지질학자들의 지적이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처럼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이나?' 라는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미국에는 지금 여러 경고음(警告音)이 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낙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 무엇보다 기준이 상실된 사회 같다. 필자가 사는 뉴욕에는 백 년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데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데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허물어진 그 날, 앤드루 쿠모 뉴욕주지사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180일 지나면 뉴욕주에서 완전 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모호한 성(性)의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인가. 과연 아무리 건물은 건실해도 정책은 부실하다면 향후 어떻게 되겠는가. 도대체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일(7월4일)은 미국독립선언 245주년 기념일이다. 이날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와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다. 그러나 그 다양함과 화려함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45년 전 그날에 미국이 선언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미국 독립선언서 2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기인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작금(昨今)의 여러 정책은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치달고 있는 듯하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훗날의 세대에서 독립선언서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터져 나오기 전에 말이다.

[정정] 지난 호(1831호) 발행인 칼럼 제목이 "죽어서 말한다" 였으므로 이에 정정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TGC, 미전역으로 확산되는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에 대한 반후저 교수의 비판 소개

“마리화나는 세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을 흐리게 하고 제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우리의 긴급함을 둔화시킨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리노이를 비롯한 10개 주와 워싱턴DC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의료 목적으로는 34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허용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대마초와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케빈 J. 반후저 트리니티신학교 조직신학 연구교수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hould Followers of Christ Use Recreational Marijuana?).

약사였던 내 아버지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1960년대와 70년대, 나는 심심풀이로라도 대마초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 결과적으로 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표준이 되는 상황, 즉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이미 합법화 됐거나 돼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 사실상 개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 오락 목적의 합법적인 대마초 사용이 기독교인의 윤리와 삶에 과연 어울리는 걸까? 예수님은 나의 땅에 쉬다고 했지만(마11:30), 대마초를 한 모금 빠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쉽다. 목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십

은 판매 세금과 라이센스 로 알티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바라기 때문이고, 또 대마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건강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더불어 중독자 및 정신병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발할지 모르는 전례 없는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해 걱정한다.



것은 피해야 한다. 오락 목적의 대마초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1970년대에 대마초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곤 한다. 네덜란드는 그 이후 범죄가 만연해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사회가 붕괴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대마

초 및 장기 영향에 관한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는 '약물남용에 관한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속 대마초에 관한 페이지다. 거기에 따르면 대용량의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 및 신체 건강은 악화되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 따르면 심대와 청소년이 대마초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주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운동제어, 조정, 판단, 반응시간 및 추적능력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관찰됐다.”

제자는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지혜로운 청지기 되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

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이 대마초를 피워도 되는 걸까?

내가 사는 일리노이에서는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이미 합법화됐다. 그리고 다른 예닐곱 주에서도 합법화가 됐다. 주 산하 카운티와 동네들은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를 파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여부를 놓고 양분돼 있다(의료 목적의 대마초는 별개의 문제다). THC(대마에서 얻어지는 향정신성 화학물질)는 이제 구운 음식, 음료, 그리고 연기 흡입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해졌다(시카고에 본부를 둔 크레스코연구소 Cresco Lab는 500가지 이상의 대마초 제품을 생산한다). 대마초를 찬성하는 사람들

성경은 대마초라는 주제에 관해서 침묵한다(술취함에 대해서는 아니다). 대마는 예텐 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0절속에 대마초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리한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영어성경에는 잔디가 grass로 표현됐다. grass는 대마초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초의 기준이 되는 원칙’(the normative principle of weedship)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대마초 합법화의 득과 실에 관한 공공 정책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은 ‘대마초 합법화: 모두가 알아야 할 것’(Marijuana Legalization: What Everyone Needs to Know)이다.

일부 사용자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이 가져다주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의 인지장애와 수행기능 판단장애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에서 언급한 책은 이렇게 서술한다. “대마초는 언어 및 작업기억, 주의력 및 정신운동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가 뇌에 미치는 단기

바로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국가안전위원회는 고용주가 안전 문제에 예민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무하지 않을 때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 모든 약국은 “대마초 섭취가 인식과 운전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대마초는 습관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미국 최대 의사협회인 미국 의료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고 있다.

(6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offering various service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offering various services.

선교·전도용 날개 없는 선풍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미주 성시화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날개 없는 고급 선풍기를 교회 및 전도·선교 기관에 나누어 드림으로써 전도·선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1개 당 10불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선풍기로 스티커를 붙여서 기증하는 기관의 이름을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심사하여 배부 여부와 배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대상 : 교회와 전도·선교 단체 및 기독교 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은 제외됩니다.)
▶연락처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문의 전화 : 담당자(cell) 213-527-8647 / 사무실 213-384-5232 / 이성우 목사(cell) 213-675-649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이메일 : mijuholycity@gmail.com
▶신청마감 : 2021년 07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 www.holycityusa.org
▶Mail :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Pay to : Mi Ju Holy City Movement

미 건국이념 '자유' ...

(1면에서 계속)
반면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1789의 자유'는 창조주와 그 질서 대신 인간이성을 최고의 절대 존재로 추대해 인간이 유포 피아적 지상낙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자유'는 군주제와 폭정에 저항한다는 표면적인 시작은 비슷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너무나 달랐다.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은 비록 당장 이어진 영국과의 전쟁으로 8천 여명의 적지 않은 전사자를 발생시켰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국가 기초문서인 미국 헌법을 탄생시켰고 미국이라는 위대한 자유공화국을 건설했다.
반면 프랑스의 1789년 혁명은 이후 수 년 동안 이어진 공포정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했고 방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17만에서 20만의 인명을 학살당하게 했다.
프랑스혁명의 시작보다 12년 앞선 미국의 '1776 자유'는 그 독립선언문에 적혀 있듯이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자명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는 이 천부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고 전제한다.
미 헌법에는 '자유라는 축복을 지키기 위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신을 인간이성으로 대체해 인간의 본성을 조작하고 사회를 스스로 설계하려 했던 1789년 프랑스혁명의 거대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부의 존재이유를 전제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은 "엄격히 따

지자면 자유의 역사는 1776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인간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적으로, 프랑스혁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인정하는 유대-기독교의 뿌리를 서구문명에서 끊어버리고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그에 따른 '1789 자유'의 전통을 낳았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인간의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상이한 대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에 비해 어떻게 다르고 더 성공적일 수 있었는지를 탐구한 토크빌은, 미국인들의 청교도적 뿌리가 개개인의 양심에 공동된 도덕성을 자리 잡게 했음에 주목했다. 바로 "자유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른 것

이다.
토크빌은 인간의 자유를 신의 은혜의 산물로 여겼고, 오직 창조주의 관제 속에서만 자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이해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또 다른 폭정으로 이를 수 있는 다수의 지배체제가 아니라 창조질서에 따른 성숙한 독립시민이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776의 자유를 바탕으로 태어난 미국 내에서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며 도사리고 있는 1789의 자유가 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견제해야만 한다. 바로 '독립정신의 끊임없는 상기와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는 단번의 천재적 기획과 실행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된 적들로부터 보전되고 수호되기 위해 끊임없는 재인식과 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론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펠릭 여사가 1960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경주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달구지에는 가벼운 짐دان이 조금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짐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게 아니라 달구지에 짐을 싣고 농부도 타고 가면 아주 편할 텐데... 통역을 통해 그녀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지요." 그녀는 농부의 말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말 못 하는 짐승이라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겼던 농부처럼 우리는 본디 작은 배려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로 꼭 차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걷는 것. 말 못 하는 짐승이라도 존귀하게 여겼던 농부의 배려심을 닦아가는 것. 배려심이 부족한 지금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떠온 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농촌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준 이야기라 옮겨보았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만나지는 매순간순간의 사건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하며 살아보리라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그 수고와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어마합니다. 배려는 마음의 울림 즉 '감동'을 줍니다. 감동은 '소통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소통과 공감을 함께 인생길 가는 '진정한 빛'을 만듭니다. 진정한 빛은 인생을 서로가 외롭지 않게, 멋지게, 아름답게, 감미롭게, 행복하게 느낌으로 함께 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배려의 힘인 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메단드로스는 말하기를 "마음을 자극하는 단하나의 사랑의 명약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와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출발하는 '이기심', 무엇 하나를 해도 여차피 비교가 되는 현실에서의 '경쟁심',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부대껴야 하는 '무한생존투쟁과 욕심', 점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처 준비부족에서 오는 '조급함', 아니면 정반대로 무한생존경쟁에서 승리가 가져다주는 '자만심' 등등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인들이 내 안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작용하여 나의 '평정심'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적극 이용하여 우리를 '초조, 불안,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평화를 빼앗긴 사람은 그냥 놔둬도 주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들을 주며 파멸을 향해 굴러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울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나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쟁이들은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물어보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일단 가장 먼저 "모든 일을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빌2:1-8).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역부족일지라도 그리 실천하려고 씩씩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때 역사와 시대의 변곡점인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들인 '초조, 불안, 무한 경쟁, 생존, 갈등, 분열, 투쟁, 압박, 욕심과 욕망, 고독, 소외' 등등 안에서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돌보며 배려와 격려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화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감동과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인생의 벚들, 천국 길 함께 가는 친구들과 함께 크로노스(세상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하나님의 시간)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djlee7777@gmail.com

리더는 '휴브리스 신드롬' ...

(1면에서 계속)
자존심으로 가득 찬 리더십 버블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존심은 좋은 리더십의 적이다'라는 글을 작성한 두 저자는(Rasmus Hougaard와 Jacqueline Carter) 세 가지 대안을 소개해준다:

1.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도 있지만, 동시에 그저 '리더'라는 자리를 인정해주기 위해 주어진 힘과 권한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리더의 자리가 제공하는 특권 중에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리더는 모임비용을 내지 않는다는지, 리더 전용 주차장이나 전용통로

가 따로 있다면 그 중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자존심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

2.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라.

리더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피드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더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지만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리더의 자존심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계속 일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가 듣기 거부해 할 수 있는 냉철한 분

석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다양한 피드백을 듣고 수용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이타적인 자세로 섬기고 성찰하며 공동체를 마주하라.

겸손과 감사는 이타적인 자세를 견고히 세우는 주춧돌과 같다. 이타적인 자세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먼저 섬긴다. 그리고 때때로 공동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리더가 되기까지 도와주고 이 끌어준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았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는지 묵상하며 겸손의 자세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몸에 배이고, 자신이 어떤 리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성찰 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이에게 감사할 내용이 생각났다면 감사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마음을 표현한다. 감사가 이어질수록 리더는 해어 나올 수 없는 자존심의

늘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리더십은 일보다는 사람과 관련된 덕목이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화한다. 만일 리더 자신이 궁극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일 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휴브리스 신드롬'이 생길 때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리더 자신이 듣고 보는 바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고 직언하는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 또 리더십 버블에 갇히지 않기 위해 이타적인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며 성찰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 된 개인주의의 거센 물결에 굳건히 맞서 교회공동체를 온전히 이끄는 멋진 리더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알림] 본지 7월 10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저희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에서는 제 9대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 2) 이민교회에서 5년이상 담임목사 경력 있으신 분
 -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외분
 -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5) 목사 안수 증명서
 - 6) 마지막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hc2019@gmail.com
 -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로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술 취해서 기억 안나!

얼마 전, 한국 언론에는 한 강 공원에서 숨진 한 의대생의 사망사건이 연일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 당일에 의대생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친구는 “너무 취해서(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절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의대생의 가족과 친구의 가족들 사이에는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운전자. 술 먹고 가족을 구타한 가정. 회식 자리에서 부

하 직원을 성희롱한 상사.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추근거린 현지 경찰 간부 등등... 한국 사회는 주취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더욱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왜 주취 범죄의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할까요? 술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대함 때문이 아닐까요? 술 취함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주취 범죄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내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주취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중범죄입니다. 음주 운전 중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진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고, 술 취함이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술 문화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 주취 범죄가 큰 범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약주를 좋아하던 저의 아버지처럼 주량이 센 술고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술

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핑계를 만들어서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취 범죄를 범하면, 다른 피의자들처럼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핑계를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 평생 술과 담을 쌓고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제 삶속에 술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 감사합니다. 술 취해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멀리합시다.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아예 술을 멀리합시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잠23:20).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롬 13:13).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지난 20일 주일은 파더스데이(Father's Day)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날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에 날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 매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은 1956년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한국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니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날'로 지정해 갖가지 경로효친 사상이 담긴 행사를 실시하다가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자 17회 차까지 어머니날을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서 '어버이 날'로 바꾸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 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 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하는 가정의 효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전후해 1주일 동안을 경로주간으로 정해 양로원과 경로당 등을 방문·위로하는 등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부터 경로 주간을 폐지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주간을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Father's Day(아버지날)의 유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1909년 워싱턴 주 스포케인 시(Spokane, Washington)의 소노라 스마트다드(Sonora Smart Dodd)라는 한 여인에 의해 아버지의 날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노라는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들던 중 아버지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인 헨리 잭슨 스마트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소노라를 포함한 다섯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었고 소노라는 그런 아버지를 특별하게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노라는 아버지의 생일이 6월 19일이었기에 1910년 6월 19일에 첫 번째 아버지날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회와 YMCA 등에서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그 날에 아버지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1924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President Calvin Coolidge)은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날로 제정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뉴욕에서 아버지의 날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966년 미 의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장미를 드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하얀 장미를 묘지에 갖다드립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남자 형제, 할아버지, 삼촌 등 평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친척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Mother's day)로, 아버지 날(Father's day)은 6월 셋째 일요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어버이날과 같은 어버이 날(Parent's day)은 7월 넷째 일요일에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는 미국에서 비교적 나중에 기념일로 생겼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법률안에 서명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성경의 부모공경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며, 도전과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부모님을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잠23:22).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효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에서는 효도 즉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멸시하지 말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절 상반절의 '너 낳은'이라는 표현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 효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하고' 라는 표현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특히 23절의 부모가 전하는 지혜

한 순종과 공경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어려서든, 장성해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베크니라"(신27:16).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 부모님을 경히 여기며,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무엇을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는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청중(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시며,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사고팔지 말아야 합니다(잠23:23).

23절에서 하나님 말씀 즉 진리와 지혜에 대한 추구하고 부모

그리할지니라'에 해당하는 '호크마 우무싸르 우비나'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단어는 사실상 '에메트'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함을 강조해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본절에서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두 동사의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에 해당하는 '케네'의 원형 '카나'는 상업상의 거래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는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지 말며' 라는 표현은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떠한 것과 결코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율

기쁘게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의 기쁨은 자녀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으며, 그 같은 삶을 견지할 때 부모들의 영원한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의 삶은 결국 궁극적인 주님 안에서 행통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24절에 '크게 즐거울 것이요'로 번역된 '꿀 야꿀'은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꿀'의 절대 부정사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동사의 부정사와 미완료형이 거듭 사용되는 표현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15, 16절에서도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윤택하리라"(잠23:15,16).

특별히 본문의 '의인의'에 해당하는 '앗디크'와 본절 하반절의 '지혜로운 자식'에 해당하는 '하람'을 병행시킴으로써 지혜와 의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즐겁게 하며'에 해당하는 '이세마흐'의 원형 '사마흐'와 '기쁘게 하라'에 해당하는 '웨타 꿀'의 원형 '꿀'이 앞선 24절에서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워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데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면하고 있는 22-25절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 즉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말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르느라고 늙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삶을 살 때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3:20).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여 효도하며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잠23:24, 25).

본 단락을 마무리하는 25절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효도 즉 부모를 즐겁게 하고

성경의 부모공경 법

잠언 23장 22-25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윤택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2).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잠1:8,9).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청중(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경히 여기지'에 해당하는 '타부즈'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뿌즈'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그리고(키)'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고 네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말아라(NASB,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늙었을 때에'라는 표현은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반절과 이어지는 23절의 내용을 적용하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도 그 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본절은 표면상 부모에 대

에 대한 효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명시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진리 추구의 삶이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는 결국 부모에 대한 효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은 말씀을 통하여 효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진리를'에 해당하는 '에메트'는 목적어이면서도 문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목적어에 선행하면 이는 특별한 강조를 위한 문자 배치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에메트'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 '에메트'와 병행하여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이니라"(렘6:1).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주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부모공경 법입니다.

사실 진리는 결코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얻거나 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집니다. 저자는 값없이 주어지는 진리와 지혜의 가치를 명료하게 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진리 추구의 삶이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는 결국 부모에 대한 효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은 말씀을 통하여 효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부모님들이 삶속에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지키며 살아 부모를 공경하며,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의 부모공경 법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잠23:24, 25).

본 단락을 마무리하는 25절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효도 즉 부모를 즐겁게 하고

코로나 목회와 현실

성도들은 세상의 현실에 대해 목회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하늘 위 무형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돈 1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현실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이민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합당치 않은 말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막 광야를 리더하며 나아가야 하듯이, 현실의 목회자도 사막 광야 같은 이민생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 하고 선문답 하듯, 학원등록 학생들 강좌 개설하듯이, 그런 목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성도들은 쉽게 말을 내어 뱉는다. '목사님의 설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신앙이 웬 말인가? 일단 먹고 살아야 교회도 올 것 아닌가?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등등이 대표적인 말들이다.

허버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편에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그 도시에는 도넛샵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성도들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감을 토로한다. 영업 특성상 자정부터 일을 하고서 오전에 문을 닫고 오후 예배라도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 비록 졸리는 형편 가운데서도 오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나마 받는 은혜가 있어서 힘든 이민생활을 지탱해 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이다. 자정부터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가 오픈되어 예배드릴 시간이 되어도, 코로나 때에 드리던 온라인 예배의 추억이 몸을 땅바닥에 주저 앉혀버리더라는 것이다.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목회자는 육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럼에도 살기위해서는 교회를 나오셔야

고 나를 위해 진심어린 기도와 목자의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라면 굳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한다.

은혜를 아는 참 예배자

목사님과의 오랜 시간 대화 가운데 작은 결론을 맺으며 마무리를 했다. 다시 목회를 잘 돌아보고, 아무리 험한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을 신앙, 삶의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땅한 예배자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함께 공감하게 되었다. 약하여 요동치는 성도들을 타하기 전에 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양육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회개의 공통제목을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방법론으로 안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이야기였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예배이다. 예배에 온전한 회복만이 교회가 강성하여지고 성도들은 그 주님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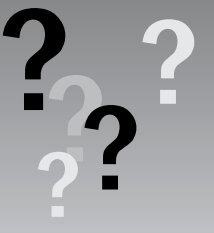
평화시에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쓴 열매가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많은 부분 지나치게 성도들의 형편에 초점을 맞추어 이벤트식 목회를 하다 보니 신앙의 내성들이 약해져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와 지나친 건강의 염려증 등으로 아주 손쉽게 사단의 밤이 되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현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보다 성도들의 필요와 형편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과연 얼마나 주일성수의 신앙, 새벽기도의 강력한 영성, 철저한 십일조 생활 등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는가? 주일날에도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함께 골프 투어를 하고 이를 두고 뭐라고 하면 찻집에 앉아 커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던가? 기가 막힐 일이다.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예배는 경시되어 버렸다. 예배의 경시는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정치와 사회 현실문제에 대해 "국가와 교회의 권위"에 교단마다 목사님들 간에도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높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보다 높은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것인지? 신구교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신학생 Lee

A: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권위의 문제는 시대마다 아주 첨예한 현실문제에 신구교나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이 취하는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카톨릭교회의 입장입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황 보니파이스 8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에 2가지 검을 주었다"고 하면서 영적인 검과 세속적인 검을 동시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검을 왕이나 통치자에 의해 사용되지만 사제의 뜻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며 세속적인 권위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권세는 그레고리 7세(Gregory 7세, 1021-1085)때에 절정을 이루었는

구교는 교회권위를 국가보다 위에...

데 독일의 하인리히 4세(Heinrich)가 교황의 권세에 도전하자 교황은 황제를 폐위하고 파문하였습니다. 결국 지 세력을 잃게 된 하인리히는 교황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 교회에 머물던 카놋사로 가서 성 밖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굴욕적으로 사죄를 구한 뒤 겨우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황권의 절정은 중세교회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Luther, 1483-1546)와 스위스 태생의 쾰링글리(Zwingli, 1484-1531)의 입장입니다. 루터는 "정부는 교회를 대신하여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불의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세속권은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출교권이 정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이와 같은 세속권 우위사상은 중세 교황중심적 교권사상을 약화시켰고 후에 세속권과 교권의 구분을 주장하는 칼빈의 장로정치 사상이 태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재세례파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정부는 세상적인 기원을 갖지만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정부는 별개의 기관이며 상호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죄악에 참여함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인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며 권징의 문제에 정부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프랑스의 장로교신학자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권위는 동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거절하고 정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다 거부하고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세례파와 같이 정부와 교회의 기능을 구별하였으나 출교권은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목회서신 중에서 "목사에게 2가지 음성이 있다. 하나는 양들을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가 양들을 낚아 채려할 때 큰 소리로 고향 치며 이리를 쫓아내면서 분노하는 음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 말함의 신실한 선포와 성령 민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 이러한 언설은 또다른 질문으로 돌아온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공감하지만, 과연 "어떻게(how to)?"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주저 말고 기억하며 소리치며 붙잡아야 한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요 4:24-26)는 말씀이다.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령의 임재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실 것이다. 그때 그 성경의 말씀에 응답하신 그대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 변종의 시대를 지나고 더한 것이 온다 할 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의 현실을 이기는 힘

- 현실, 은혜, 회복

그런데 실상은 먹고 살겠다고 주님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전념하던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패망의 지름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의 길을 벗어난 삶의 방향들에 대해 불을 보듯 분명한 결론을 말해 보지만 자신의 영혼을 맡겨야 하는 목회자의 권고와 흘러가는 세상 드라마보다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인근 도시에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다. 백신 접종을 하기 전 코로나가 아주 독세하던 때에도 음식을 만들어 문고리 심방을 하면서 백신이 나오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그 기대감속에서 주일날 대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열심히 심방을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목회자 부부의 심정도 모른 채 코로나 시기에 집을 방문한다며 타박을 받기도 하고 에티켓도 모르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마음 약한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절절 갈라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목사님은 꼭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성도들의 움직임이 유지부동일 뿐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동안의 온라인 예배의 그 편리함이 몸을 땅바닥에 붙여버리고 만 것이다. 몸이 땅에 붙어 있으니 영혼도 절로 육신에 갇

힌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편안함에서 탈출

최근 인근 대도시 교회의 목사님의 전언을 들어보면 위에 언급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교회마다 불어 닥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진다고 한다. 그 이유 권고와 흘러가는 세상 드라마보다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인근 도시에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다. 백신 접종을 하기 전 코로나가 아주 독세하던 때에도 음식을 만들어 문고리 심방을 하면서 백신이 나오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그 기대감속에서 주일날 대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열심히 심방을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목회자 부부의 심정도 모른 채 코로나 시기에 집을 방문한다며 타박을 받기도 하고 에티켓도 모르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마음 약한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절절 갈라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목사님은 꼭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성도들의 움직임이 유지부동일 뿐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동안의 온라인 예배의 그 편리함이 몸을 땅바닥에 붙여버리고 만 것이다. 몸이 땅에 붙어 있으니 영혼도 절로 육신에 갇

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예배는 신앙의 종합이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되면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될 따름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예배가 침체되는 순간 교회는 침체되고 나라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은혜의 통로가 무너져 내리게 됨으로 마치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성도들은 떠도는 부초(浮草)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영혼을 주님 앞에 뿌리내리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실제로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고, 예배가 바로 드러지는 곳에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나라와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예배이다. 예배를 빼놓고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살아 있는 예배가 없이 전도가 있을 수 없고 선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와 가정, 성도의 영적부흥과 신앙의 성숙은 예배를 제하고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시 전쟁준비

결국,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신앙의 현실들 앞에서 펍픽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보노라면

포함한 너무나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마스크 너머로 따스한 입김에 점점 더 험한 찬양의 소리도 잊혀져간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된 기기 문명의 세계는 성경과 다양한 기독교 문화 활동을 생각 없는 손가락 운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예배시 세상의 오락과 영상을 보던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할 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뱉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됨을 본다. 이에 덧붙여 말씀시간도 너무 축소되어 간다. 30-40분 이상 설교하는 예가 잘 없는 아주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회복의 방향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들의 예배 정신 위에 교회는 세워져왔다.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방법으로 수세기 수천 년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좋은 예배를 찾으신다.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배를 찾는 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한번은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식당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맛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둘러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운타운 32

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을 갔습니다. 전망은 없지만 실내 장식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둘러보는데 식당 벽면에 유명한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의 얼굴 그림을 왜 식당 벽면에 그려놓았는지. 직원은 이 사람들은

튜벨브라우전달러 멤버들(\$12,000 members)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에 와서 그동안 만이런 볼 어치 식사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식당에 와서 자신들이 설정한 액수만큼의 식사비를 지출한 사람에 대한 예우로 대접해 주기 위해서 얼굴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기부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 학교에서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서관이나 건물의 이름을 명명해주는 것을 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가끔 하나

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시18:20).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계2:2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온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고 번덕이 심한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에게 유익을 준 사람을 기억해주며 사는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의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폭력 목사, 목사직 박탈 83% 찬성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미국 개신교 목사들의 성폭력 목회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라이프웨이는 목회자의 성적 문제에 있어 3가지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성인에 대한 성폭력, 간음으로 나눠 분석했다. 영구히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각 83%, 74%, 27%였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를 보는 시각임에도 개신교 목회자 83% 이상이 아동 성적학대를 저지른 목회자는 공적사역을 영구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복귀한다면 필요한 공백 기간은 10년 이상 2%, 5년 이상 3%, 2년 이상 3%였다.

미국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98.8%가 감옥형을 선고받고 평균 형량이 거의 16년이었다.

개신교 목사들의 74%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목회자는 공적 사역에서 영구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복귀한다면 필요한 공백 기간은 최소 10년은 5%, 최소 5년은 5%, 최소 2년은 5%였다.

하지만 오순절 목회자(44%),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58%), 대학 학위가 없는 목사(63%), 65세 이상 목사(69%) 등은 다른 개신교 목회자들에 비해 너그러운 입장을 보였다.

2019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연구는 교회 내에 숨겨진 성폭행 문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많은 개신교 교인들은 목회자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32%)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행(29%)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교회신자들의 75%는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목회자를 성추행 혐의를 철저히 조사를 원한다고 했다.

성폭행에 비해 합의된 것을 의미하는 간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럽다. 2019년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연구에 따르면 27%만이 간음한



목회자가 영원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많은 31%는 확실한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인근 교회를 '기도와 봉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메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붕괴사고 인근 교회들이 한 명의 생존자가 더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붕괴 사고는 지난 24일 발생해 4명이 숨졌고 159명은 실종 상태다.

아파트 주변 교회들은 사고 직후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하고 기적을 위한 기도회로 모여 실종자 수색 구조팀이 한 생명이라도 더 찾아내길 기도했다. 사고 아파트에는 갈보리 채플마이애미비치와 연결된 가족도 살고 있었다. 이 교회 성도의 모친을 포함해 적어도 2명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층 규모의 이 아파트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외국인 은퇴자를 비롯해 남미 출신 이민자, 정통 유대인 등이 살고 있었다.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교회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카사교회이다. 카사교회는 사고 직후 교회회 개방해 경찰과 소방대 등 구조 인력과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 간식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교회 성도들은 직접 자원봉사자가 되어 구조팀과 취재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간식을 전달했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 교회는 자원봉사를 긴급 교회 사역으로 정하고 지난 주일부터 대면예배를 취소했다. 마이애미 리치웨이켄보스교회는 헌금 등을 지원했다.

갈보리채플마이애미비치는 경찰서장과 플로리다크리스천평화사무관 등의 협조로 붕괴된 아파트 옆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교회 측은 “우리는 기도도 이 재난 현장을 덮었다”고 말했다. 마이애미비치 경찰서장도 구조팀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

마이애미 비치의 JP 펑크 목사는 “지난 25일 기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며 동시에 그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비통을 같이 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현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도 나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죽음을 허락하는가’ 하며 질문하고 있다. 펑크 목사는 “모든 인간 비극의 최고의 진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벌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성(humanness) 안에서 여러고 상처 받기 쉬운 존재”라며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인용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광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독교인 자원봉사팀에는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와 예수전도단(YWAM)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영적 돌봄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GEA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때 도움이이라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조되기를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공화당원 66% “미국, 도덕적으로 약화”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은 미국의 도덕적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 결과

를 16일 발표했다.

미국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나쁨(poor)”, 37%는 “타당함(only fair)”, 15%는 “좋음(good)”이라고 답했다. “탁월(excellent)”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단 1%에 그쳤다. “나쁨”이라는 의견의 비율은 2019년에도 47%로 같았으며, 2017년에도 유사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는 큰 격차가 보였다. 응답자 중 공화당원은 66%가 “나쁘다”고 답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원 응답자는 30%만이 이에 동의했다. “좋음” 또는 “탁월함”이라 답한 공화당원은 7%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원은 22%였다.

또한 미국인의 67%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28%는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서도 당파별 평가는 크게 달랐다.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92%, 민주당원은 49%인 반면, “나아지고 있다”고 한 민주당원은 46%, 공화당원은 7%였다.

공화당원 중 “타당하다”는 답은 27%였으며, “탁월”하거나 “좋다”는 답은 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의 리디아 사드(Lydia Sadd) 미국사회 연구이사는 온라인 분석에서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도덕적 변화는 워싱턴의 권력 이양이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을 인식하는 방식에 평소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낙관적이며, 공화당은 가장 덜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사드는 “공화당원의 미국의 도덕적 가치 대한 관점은, (정권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로 옮겨감에 따라 지난 1년간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공화당원의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며 “2009년 대통령 지도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양된 이후나 2017년 버락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교체된 때에도 이 같은 우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2면에서 계속)

“대마초는 위험한 약물이요 당연히 심각한 공중보건문제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한정형용사(qualifying adjective)인 ‘오락 목적의’(recreational)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은 이미 직업윤리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향상된 놀이윤리(play ethic)다.

대마초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성인 그리스도인, 즉 자신의 집에서 은밀하게 적절한 정도로 피우겠다는 사람에게 목회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마초 흡연은 여전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소리다.

게다가 2018년 6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5%가 대마초 흡연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수면 아래에 숨은 진짜 질문은 대마초를 통해 얻고

자 하는 효과, 그러니까 불안감 감소, 환율감 체험, 창의력 향상 등을 과연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빌3:20)?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의 원래 의미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영적인 회복 또는 영혼의 소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긴장을 풀거나 즐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한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활동이다.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이 시간은 혼자 보낼 수도 또는 함께 보낼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요세프 파이퍼(Josef Pieper)는 여가를 세상의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성의 태도와 영혼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한 여가는 문화의 기초라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대마초 사용이라는 여가가 만들어내는 문화란 어떤 것일까? 대마초 사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대마초와 대마초가 일으키는

효과를 표현하는 단어는 수백 개가 넘는다. ‘망각’, 대마초는 기억을 잃게 한다. ‘후디니’(Houdini), 다양한 탈출 마술로 특히 유명한 미국의 마술사, 현실에서 탈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stoned), 취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한다.

더 게을리된 몸과 마음에서 파생되는 행동들과 결과로 규정되는, 점점 더 돌처럼 되어가는 문화와 그리스도도가 대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두 가지 성경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다. (1)합법적인 것과 편리한 것의 대비 (2)경계할 것을 상기시킴 - 목회자가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옳고 그르냐의 도덕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의 제자도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6:12).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당시 방탕한 고린도인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정형용사를 인용하는 것 같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하는 어떤 행동도 다 기독교인의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갈2:20).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더 명확하게 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6:12; 10:23).

성령 충만은 자기 절제로 이어진다(갈5:22-23). 그에 반해 황홀감이 빠지면 절제력이 사라진다. 술을 마시는 것과 대마초를 피우는 것의 차이에 주목하라. 식사 시간에 곁들이는 한 잔의 와인인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비록 오락 목적이라고 해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결국 황홀감에 빠지기 위해서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은 그 근거를 항상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막13:32-37). C. 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깨어 남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제자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항상 깨어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묘사할 수 있다. 복음을 지니 전국 시민권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결맞는 삶을 사는 특권과 책임에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남은 구역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습1:12).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complacent)의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와인 찌꺼기의 농축”을 의미한다. 대마초를 한 모금만 빨아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난다.

현대 문화는 일반적으로 대마초 사용자 불행하긴 하지만 해가 되지는 않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돌처럼 굳은’(stoned), ‘취한’(baked) 및 ‘무뎠진’(blunted)은 모두 수동적 동사로, 마약에 취해서 무기력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다. 제자가 성자이면서 동시에 게으름뱅이일 수 있을까? 오락용 대마초는 나태해지는 가장 최신의 방법일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아예 깨어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심각한 죄악의 상태다.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On Christian Doctrine)에서 사용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 어거스틴(Augustine)의 말은 오락용 대마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자체로 즐길 수 있

는 대상,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뿐이다. 대마초를 피워서 황홀경을 느끼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할 가장 높은 하나님 그분 외에 단지 창조물을 사용해 뭔가를 즐기겠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오락용 대마초는 말할 것도 없고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레크리에이션을 일일 주는 억압과 대비함으로써 수상화시키려는 유혹이 있는 동시 그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지 ‘쉬는’ 시간으로 간주함으로 경시하려는 유혹도 같이 존재한다. 선한 청지기 정신은 일하는 방식에서만 아니라 쉬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제자는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지혜로운 제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 “깨어 있라”(막13:37).

[정정] 지난 호(1831호) 발행인 칼럼 제목이 “죽어서 말한다”였으므로 이에 정정합니다.

종교적 관용

한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가 절을 찾아가 불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공영TV에 방송되었다. 2003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모습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개신교 관계자들이 이는 우상숭배 행위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신교가 결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며 관용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위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틀 안에 신을 가두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답하였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해직되었다. 그의 태도가 착각 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한국 종교계 전체가 들쭉거린 큰 문제로 확산되었다. 보수적 개신교계에서는 그의 해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에 맞선 소수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여러 불교 및 가톨릭 단체들은 그를 지지하여 복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는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우 전투적이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비하하는 매우 언짢은 호칭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결국 그는 법정싸움에서 승리하여 복직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강의와 저술활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전통적인 종교관을 드러냈다. 그는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구조가 서로 통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찰을 찾아가 불상을 부수거나 땅 밟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대할 때가 있다. 종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언급하면, 즉각 기독교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자들이 무척 많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사상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베풀어야 한다. 개신교와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예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 지닌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같은 동일하게 주어졌다하며 '종교의 일치'를 주장할 때에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교회

제도를 가졌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는 동일하기에 얼마든지 한 몸으로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구교와 신교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 되면, 개신교 교회 강단마다 16세기 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비록 한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가톨릭교회가 지닌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과 전통으로 인해 함께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구교와 신교

를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였으나 분열된 상태에 머물러있는 동방교회 및 개신교가 한 분의 그리스도를 공유하기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일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가톨릭교회를 방관하거나 미사를 참석한 경험이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을 개사하여 미사 도중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미사에 참여한다. 신부들은 강설시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심지어 평신도 주일을 설정하고 교회의 중요 구성원이 사제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개신교

길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인정하기에 이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힘을 입어 종교다원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들은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기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하나같이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님이란 정상에 오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해석한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의 갈등을 회피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두고 서구교회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지만 향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1886-1968)가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있기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즉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명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존 힉(1922-2012)은 칼 라너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은 '신 중심 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신을 섬기지만 사실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다원주의 교리가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고 향후 발전되었다. 힌두교 아버지와 가톨릭 어머니를 둔 라이몬도 파니카(1918-2010)는 모든 종교들의 인간 안에 내재하는 로고를 반영함으로 종교적 경험이 일치하기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로고는 오직 종교들이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석가, 마호메드, 공자, 라마 역시 보편적 그리스도로서 나타난 역사적 인물이다. 뉴욕 유니온신학교의 폴 니터(1939-) 교수는 기독교를 상대적 종교로 이해하였다. 모든 종교가 초월자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신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변신한 교수가 1980년대에 그와 유사하게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신 중심'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그가 속하였던 감리교단은 동양종교에 심취하여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던 그를 목사직에서 면직시켰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8)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4) - 종교다원주의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타 종교와의 대화'란 타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도 인정하는 것 구원의 유일성 포기하면서 타 종교 수용하는 일은 어떤 형태라도 거부

사이에 다른 것이 있지만 매우 경미하며 도리어 이웃사촌과도 같은 신앙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중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약 15세기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타 종교에 비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가톨릭성도가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가 받았던 영세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입교예식을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수적 가톨릭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학자들보다 성경의 권위와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해석이 전통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교회는 개신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신교 교인들이 구교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1960년대 이후 가톨릭교회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톨릭교회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지녔던 과거의 도도한 이미지를 포기하고 더욱 친근하게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모였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결정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선포하고 이를 세상에 알

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타종교와의 대화

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향후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개신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된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들이 결정한 교리적 구성 중 제2장 '하나님의 백성' 항목 16조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정된다는 사실을 결정하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게 하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비그리스도인조차도 성실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영원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무용지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이슬람, 불교, 유대교 등의 타종교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대화란, 이는 근본이 다른 종교이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종교적 일치점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가톨릭교회가 타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다원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을 배타주의로 몰아세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종교적 독선을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편집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대한 기록은 그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 작업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루터교 신학자 루돌프 블트만(1884-1976)은 성경의 비신화화를 시도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신화적인 이야기를 모두 삭제해야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폴 틸리히(1886-1965)는 문화와 종교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근거로 기독교인은 타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동양종교는 기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비록 종교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을

유일한 구원종교

현재 종교 간의 대화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비서구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반서구 감정이 높아지면서 동양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WCC가 종교다원주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타종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면서 타종교를 수용하는 일은 어떤 형태라도 거부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세계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류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8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service times.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38)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를 새롭게 하는 영적백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리더

세계 최고의 신뢰와 명성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연구해보면 어떤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킬 것은 소중히 지키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한 때 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걷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다. 모든 위기와 정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리더는 바로 이런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이가 들고 연수가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처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위기는 가시적인 속도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자세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의 대처능력은 위기상황에서 성도들과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없는데 성도들과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줄리 없다. 그래서

나이 들면 멀리만 보이는 노안되는 의미 되새겨 사명 우선주의, 내가 낮아져야 그리스도 드러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슬퍼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나이 드는 것이 단순히 노쇠나 노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험과 경륜이 축적된 자산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할 때 조직이나 개인은 정체와 퇴보를 시작한다.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여러 부분에서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을 지닌 개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라는 명제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리더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영적 백신을 맞아야 할 때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위기가운데 신음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위기 속에 빠져있다. 위기상황 속에서 리더에게 부여된 가장 큰 도전은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일이다. 리더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관란을 헤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분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십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폭풍이 거세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리더에게 자신감을 가로막는 낙심이 가장 큰 적이다. 목회자에게도 낙심이 문제가 된다. 사임가, 쉼터러움, 연애인, 정치인도 모두 그렇다. 가정의 아버지들도 자신감을 잃을 때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다. 가정으로서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다면 절망상태가 되고 병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리더를 새롭게 하는 영적백신

①틀 안에 갇혀 있으면 개혁은 요원하다 고정관념을 갖고는 개혁리더가 될 수 없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개혁하는 교회 리더는 부분에 얽매어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도외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노안이

찾아온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려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노안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노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숙한 삶에는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참 일할 나이가 나무를 보는 삶이었다면, 성숙해서는 숲을 보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개혁하는 리더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개혁은 요원하다.

②개혁은 신앙 전체의 변화이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 개혁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변화될 때 개혁이 실현된다. 그리고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하는 교회리더가 되려면 먼저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잃고 세상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이 많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에서 헤매는 지도자들이 많다. 개혁하는 교회리더가 되려면 교회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리더의 사명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사명완수를 위해 부단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③교회리더가 사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다

기독교연합기관이나 대형교회의 타락상으로 인해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미래가 없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교회와 교단 그리고 연합기관이 탐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리더가 사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다. 교회는 철저하게 깨지지 않으면 살아 개혁할 수 없다. 여러 교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권선거 등의 비리는 없어야 한다.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리더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리더들은 나 자신부터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나를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섬김으로 영성을 회복해 다시금 희망을 주는 기독교와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다는 역사를 믿고 다시 한 번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자.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길 간절히 조아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인 티널을 지나가며 그동안 지독히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먹구름 가득 차올랐던 육신의 순간들... 때로는 그들이 시기와 부러움이 되어 낙심되고 연약한 마음으로 무너져 내려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 간간이 그리고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때문에 진하게 힘을 다해 그래도 오늘을 또 살아간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낭비한 세월도 길 텐데... 우리 육체는 쇠잔해 가며 의지도 약해져 가는데 성경은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후4:16)는 소망의 말씀을 해준다. 그렇다 그렇잖고 우리의 영혼마저 흠미해 간다면 은총으로 주신 삶이 너무 섭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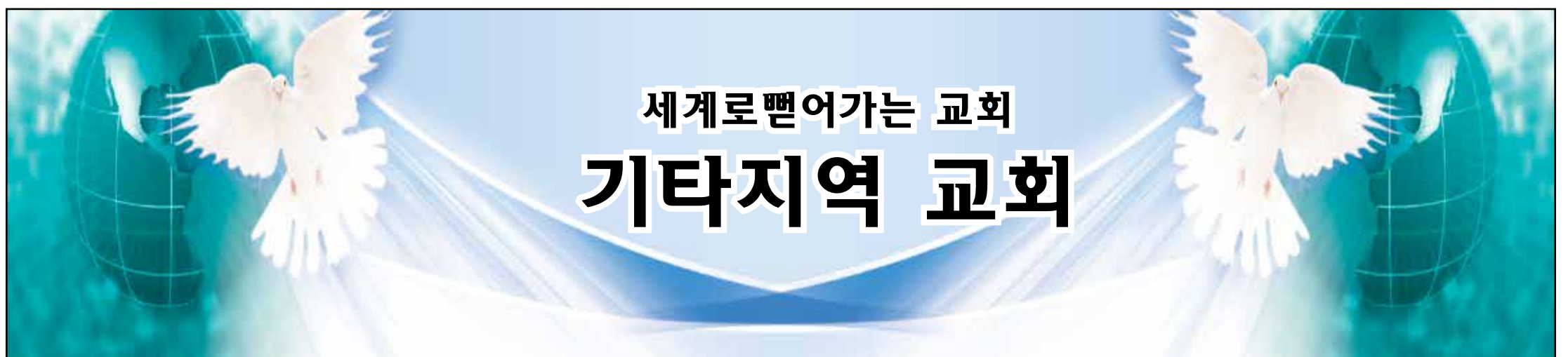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행19:38)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오늘날에 마귀에게 놀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나?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 하셨던 일은 무엇이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두 가지는 아마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아닐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 성경은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잠20:22)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요10:10) 그 말씀들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켜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항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또 말씀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두려움, 의심 불신앙의 모든 말들에 귀를 닫아걸고 말이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는 말씀 앞에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렇게 끝까지 마음속으로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그래, 오늘은 아프고 슬퍼도 변함없이 높고 푸른 하늘과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직 우주의 한 복판에서 살아 있음을 가슴 벅차도록 확인하며, 우리 인생의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달고 오묘한 진리를 생수처럼 부어주시고 계심에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한껏 마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떠서 입술과 가슴에 담아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우리 영과 육체에 임하였음을 온 맘 다해 선포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고령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령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인도: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t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Horsham,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326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잘 깨닫는 사람의 행복”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음을 통하여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생의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각양 고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 행복한 교인으로 서의 삶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네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짐조들을 바라보고 종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노아 홍수심판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24:39)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삶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마13:23).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깨닫는 마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 받고, 어떤 이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깨달음에 지각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 버스를 타야 함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깨달되 늦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달음의 은총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단10:11). 다니엘은 잘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미래도 잘 깨닫고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잘 깨닫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사라지

고 수증기처럼 사라짐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은 잘 깨달음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삶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거부하고 깨달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낙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준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시49:22)

cyd777@hotmail.com
[정정] 본지 1828호 9면 ‘목회서신’ 필자를 ‘지용덕 목사’로 바로 잡습니다.

UMC 하기가 감독, 한인목회자 3명에 통보 철회

김낙인 류재덕 목사 재파송, 이성현-정상용 목사 교차파송

2021년 연합감리교 자주 태평양연회가 6월 17일부터 19일 까지 ‘회복: 팬데믹의 비유들 (Restoration: Parables of the Pandemic)’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연회에서는 이 연회 주재감독인 그랜트 하기가 감독이 동성애를 반대하며 교단 분리운동에 앞장서온 3명의 한인 목회자(김낙인, 류재덕, 이성현 목사)에 대한 재파송 불가통보로 인해 한인교회는 물론 한인교계까지 ‘징벌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명명과 항의시위를 벌여온 터라 연회를 통한 감독의 결정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하기가 감독은 김낙인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와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는 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파송 불가 통보를 철회하고 현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재파송을 하되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는 하와이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의 정상용 목사와 7월 1일부터 교차 파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인교계는 “교단을 떠나 한인 교계 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며 “다행스럽고 좋은 소식”이란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김낙인 목사는 “감독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연합감리교 4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온 힘을 합하고 초교파적으로 한인교계가 연합해 감독의 부당한 처사에 대처한 결과라고 본다. 무엇보다 평신도들이 적당

한 때에 연합된 목소리를 내어준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혼신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했다.

한편 3일간 열린 연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한인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목사: 최 제임스, 최기태, 김 수잔나 △프로비저널 정회원 목사: 전재홍, 정춘역, 김정민 △준회원 목사: 문진희.

연회 중에는 박승호 교수(오하이오 연합신학대학원)의 온라인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했고 별세 목회자 추모식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조찬선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열렸다.

또 오경환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의 아들 오세진 목사가 LAX 근처 엘세군도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특/별/기/고



최수남 목사
(LA다민족선교)

God bless America!

내가 사는 아파트의 현관 위에 붙여진, ‘God bless America!’ 문구는 7월 4일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더운 열기로 뜨거워진 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의 염원이며 우리들의 기도인가!

이곳에서 살다가 외국인선교를 위해 지난 십여 년을 한국에서 지내며 언제나 7월이 오면 화려한 폭죽과 바비큐로 함께 즐기며 그 날을 기념하며 기뻐한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작년에 선교지에서 돌아오니 ‘COVID19’이 창궐하여 문밖에도 잘 나오지 못한 감금의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를 그저 어두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 마음껏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위협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운 형태로 변이하여 인도와 남미 등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이 땅에도 곧 상륙한다니 마음이 다시 어두워진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이 나라에 만연한 동성애와 이를 미화한 ‘Equality Act(평등법)’로 우리의 후세들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법안이 대법원에 이미 상정되어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를 극구 호도하면서, 특히 한국의 미 대사관에 걸려있는 무지

개 깃발은 화려한 색깔과 어울리지 않게 이역만리에 사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1:26-27).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신 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어찌하여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백성처럼 멸망의 길로 이 나라는 나아가고 있는지? 곳곳에 총기사건과 마약, 섹스, 유해한 게임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은 마구 무너지고 있다. ‘에이즈’란 몸속 질병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가운데 지내기도 하며.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해마다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금년은 가뭄의 비가 예년보다 더 높아서 비가 속히 내리지 않으면 사상 최악의 산불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NASA가 위성사진으로 TV에서 보여주

고 있다.

엘리아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상을 철거하고 회개하니 비가 왔다고 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시147:8). 그럼에도 패역한 인생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롬1:28)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양적 비둔함과 외적 세력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한다. 우리 은퇴교사들의 기도회가 내가 근무했던 오렌지카운티의 ‘Fullerton’에서 매달 1번씩 모이고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미국인들은 많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주위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과 질병들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자! 고 권하였다. 그 이튿날에 날아온 반가운 문자는 어제 기도해주시어 오늘 이곳에 굶은 빗방울이 내리고 있다고 감사하단다. 할렐루야!

잠시 내렸던 그 비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심을 보여주는 산교육이 되었다. 올해는 기쁨으로 ‘독립기념일’을 즐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된 참 기쁨을 승리하신 주 예수와 함께 누리보자!

미주지역 목회자 공동저서 우수도서 선정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교회의 미래’ 세종도서 교양부분

미주지역 목회자들이 공동저자가 되어 출간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가 한국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세종도서 교양부분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엮고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이 책임편집을 맡아 발간된 이 책은 지난 1월 도서출판 ‘동연’에서 출간돼 미주지역에도 널리 보급됐다.

세종도서는 지난 1년 동안 출간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인데 종교 부문에서는 17권만 선정하고 있다. 세종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한국 전역에 있는 2,800개 도서관에 보급된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세종도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교회의 미래'.

은 포스트코로나 주제와 관련된 도서들이 무수히 출간됐는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는 이 주제와 관련해 선정된 얼마 되지 않은 도서 가운데 한 권이다.

책임편집을 맡은 이상명 총장은 “12명의 미주지역 신학자

들과 목회자들(한국 목회자 1명 포함)이 함께 참여해 출간된 도서가 한국 문화관광부 세종도서로 선정된 것은 미주 교계와 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같은 제목의 목회자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강사들의 원고를 한데 묶어 단행본으로 나온 이 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 개신교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신앙에 대한 본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공사병 등 팬데믹을 겪었던 과거,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책임과 존재 이유 그리고 1차원적인 외관의 교회에만 머물러 주일성수 초월 등 좀 더 개신교인으로서 본질에 대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6.25 제71회 한국전쟁기념예배가 6.25점전 전함인 SS레인빅토리호에서 드렸다.

대한민국위해 전심전력 기도할 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제71회 6.25전쟁기념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은 ‘6.25 제71회 한국전쟁기념예배’를 6월 25일 SS 레인빅토리호에서 드렸다.

기념예배에 앞서 1부 효사랑대학(대표 김영찬 목사) 학생들이 난타공연은 우리 가요장단 외에도 향촌에 맞춘 공연에 청중들은 환호했다. 평균연령 70에도 일치된 장단에 맞춘 가락의 아름다운 연주는 10대 소녀들의 순수함과 진실된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읽을 수 있었다.

이우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된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71주년을 맞는 한국전쟁기념예배를 한국전쟁당시 참전해 흥남, 원산에서 각 14,400명과 7004명을 구출한 똑같은 배에서 행사를 갖게 됨에 큰 의미가 있다”며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한 내외귀빈 모두를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예배는 국가배려와 애국가 성조가에 이요셉, 이새, 기도에 하세화 권사, 기념사에 조웅규 전의원, 박희성 목사, Dr. Hebert Curtis(통역 박성녀 목사), 설교에 조현영 목사, 축도에 김영찬 목사가 각각 순서를

말았다.

특별히 한국전쟁당시 이 배를 제일 마지막으로 구사일생 타고나온 조웅규 전 의원(대한민국 15, 16대)은 “당시 나는 14세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복합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족 부모 형제자매간 피로 살상을 자행한 악마 같은 김씨 3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김일성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현 정부의 각 부처를 잡고 있음에 매우 개탄하며 이 모든 것이 우파의 분열과 헌법에 다수결 원칙 법

이 제정되도록 임법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창립총회에서 이우호 준비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이우호 위원장은 “조만간 취임식 및 전당대회를 갖고 한인공화당의 정체성에 대해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패밀리터치 독서모임

패밀리터치(원장 정성숙 박사)가 주최하는 Just Show Up 독서모임이 7월 13일과 14일 2개 팀으로 나눠 8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30분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줌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팀 컬러 목사의 "결혼을 말하다"(The Meaning of Marriage). 성경적 결혼관을 갖기 원하거나 청년대학부 사역자,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비는 60달러.
▲문의: (201)242-4422

정성만 목사 별세

정성만 목사(UMC 은퇴·사진)가 6월 23일 오전 1시 2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6세(1945년생).

장례예배는 25일과 26일 그레이스벤엘교회와 뉴저지교회 장(葬)으로 열렸으며 토도와 공원묘지(295 Totowa Road, NJ 07512)에 안장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혜경 목사(UMC 은퇴)와 사이에 1남2녀와 8명의 손주가 있다.

고 정성만 목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드류신학교(목회학 석사와 박사)와 프린스턴 신학교(신학석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1972년 유학차 도미, 1977년 4월 뉴저지 베델교회를 개척했다.

2016년 그레이스교회와 연합하고 그레이스벤엘교회로 명명, 2017년 은퇴했다.

고 정성만 목사는 미주웨슬리복음선교단 개척멤버(1981), 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 회장(1991), 뉴저지교회 6대 회장(1992), 미주웨슬리복음선교단 단장(2003-2007), 뉴저지전대학 학장(2006) 등을 역임했다. 설교클리닉 뉴저지 지부장, 뉴저지권사합창단 단장, 한국 군교회 뉴저지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유원정 기자)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뉴욕교협 목사회 공동주최, 강사 라흥채 목사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미나가 라흥채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다. 라흥채 목사(뉴욕제자교회 담임)는 이날 자신의 저서 13권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했으며 점심도시락도 제공했다.

6월 24일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과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공동주최했다.

문석호 교협회장은 라 목사를 소개하며 "디지털 시대가 빠른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책을 저술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라흥채 목사는 "1)와 하나님

은 인간을 창조하셨나 2)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2가지 질문에 대해 1)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2)인간을 통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라는 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라 목사는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며 "다니엘서에 보면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 70이레를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세상의 끝)하신다니 얼마나 희망적인가! 우리는 지금 69이레 후 70이레 사이에 살고 있는데 코비드19는 그 사이 한 이레에 대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서 예배 못드린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라 목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는 것이며 심판이 있게 되며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 목회자들은 성경말씀을 내 일로 여기고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들 때 더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성도들

을 인도해야 한다"고 도전했다.

세미나는 교협총무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김희숙 목사(교협부서기, 글로벌여목협 회장), 성경봉독 이춘범 장로(교협이사장), 특별찬양 성음크로마하프단(단장 김사라 목사), 강사 소개 및 인사 문석호 목사, 특별세미나 라흥채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교협서기), 축도 김진화 목사, 식사기도 김희복 목사(교협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플러스교회 설립 5주년 및 오태환 목사 은퇴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은퇴

뉴욕플러스교회 설립5주년 및 오태환 목사 은퇴감사예배

뉴욕플러스교회 설립 5주년 및 오태환 목사 은퇴감사예배가 6월 27일 오후 4시 본 교회 당에서 열렸다.

오태환 목사는 1994년 도미 후 95년 은총장로교회(PCA 소속)를 개척하고 시무하다가 5년전 플러스교회(김춘근 목사)와 합동하고 설교 협력 목사로 사역해왔다.

오 목사는 답사에서 "교회를 단을 생각도 몇 번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같이 달려온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됐다"며 "어려운 중에 플러스교회를 만나 연합할 때 5년을 약속했다. 플러스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김춘근 목사가 이끄는 뉴욕플러스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기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예배는 김춘근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훈 목사(뉴욕주심교회), 성경봉독 신현욱 권사/성경봉독 찬양대 플러스교회 트리니티 찬양대, 설교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축사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김진화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영상축하인사 소강석 목사 박형은 목사 선우권 목사 김학래 코미디언 박기준 목사, 답사 및 특송 오태환 목사, 특별취임무용 플러스교회 헬시바시교무부 단 EM그룹, 헌금기도 최길영 목사(교회), 헌금특주 사라황

바이올리니스트, 봉헌축복기도 이용걸 목사, 인사 및 광고 김춘근 목사, 축도 김영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딤후4: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강조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한다. 즉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다. 교회가 할 일은 전도다. 영원한 것을 위해 세상이적인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 교회를 26년 섬기고, 또 아들을 목사(오세준)로 만든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은퇴하는 오태환 목사를 격려했다.

박상일 목사는 "목사는 은퇴해도 사명은 남아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뉴욕목사회 회장 김진화 목사는 "은퇴는 다시 출발하는 날(re-tire)"이라고 말하고, 뉴욕교계에서 전도사역을 많이 감당해온 오태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태환 목사는 1983년 개혁총회신학교(B.th)와 1986년 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1989년 예장합동총회 총경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서정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1994년 도미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후원금 답지

지난 15일 한인노숙인쉼터 구입을 위해 뉴저지 Cedar Grove 거주 전명숙씨가 3천 달러, 이병국씨가 2천 달러, 김태복 사모 100달러, 박혜숙 권사 100달러, Justin H. Cho 200달러, "수치범 밖에서 기쁨범밖" 저자 미셸 S.

Kim이 450달러를 각각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했다.

뉴욕나눔의집 후원문의는 전화 (718)683-8884, nanoomhouse9191@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4개 교회연합 이용걸 목사 초청 연합집회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바른 목회자가 되라" 주제, 직분자 세미나도

4개 교회연합 이용걸 목사 초청 연합집회 및 세미나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4개 교회가 연합으로 이용걸 목사 초청 연합집회와 세미나를 뉴욕새벽별장로교회에서 27일 주일 오후 1시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었다. 또 29일 오후 8시부터는 직분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열린 이 집회 참석 교회는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 주기쁨교회(이종태 목사), 뉴욕좋은교회(정인수 목사), 뉴욕심포니교회(신동기 목사)다.

목회자훈련원이 주관한 세미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바른 목회자가 되라"(딤후2:15)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29일 오후 8시부터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라"(히6:10)는 주제로 진행됐다.

28일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경원 장로(목회자훈련원 1대 위원장) 사회로 이종태 목사 기도 후 이용걸 목사가 "교회성장 비결"(행9: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용걸 목사는 "교회성장이 목회자의 우상이 되면 안된다"며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부흥은 수적 의미가 아니고 회복, 되찾는 의미다. 즉 심령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개다. 본문의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 첫째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 둘째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셋째 성령의 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40년 목회하고 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실제적인 목회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는 소명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행복한 부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의 권위는 1)하나님 2)말씀 3)영적 4)회생 5)인격에서 온다며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으며 영력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라, 목사가 앞장서 본이 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등으로 설명했다.

점심 후 오후시간에는 목회자의 자세(행20:17-38), 행정, 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목회(심방) 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목적, 자격 정리...징계수위 높여

뉴욕교협 혁신위원회 3차 회의 논의 이어가

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유상열위원장과 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현영갑 목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전희수 목사의 개최기도 후 시작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 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제 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교회의 조직과 내규(소속된 교단의 내규인정) 제3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및 은행 account 사용여부 제4항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8조(징계) 회원교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정관 및 각종의

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속한 교단에 문의후 결정)

▲제8조 징계에 관한 사항(선거시 금품수수 및 대표행위, 품위손상, 회원으로서의 윤리도덕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징계수위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안건을 각 위원이 만들어 다음모임까지 제출해 채택안건으로 정한다.

제1항 본회의 회원은 교회이므로 징계는 교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를 범조항에 따라 징계한다.

이날 혁신위는 위 내용 논의 후 △지역별 활성화 △교협의 건물과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총담방안 △할렐루야대회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현영갑 목사 기도로 마쳤다.

한편 증경회장단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7인 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문석호 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알려졌다.

그 면담요청은 기존회칙에 명시된 회원자격 중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는 사항이 삭제되고 "은퇴한 증경회장은 투표권이 없고 연권만 갖는 것"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다음 모임은 7월 7일(수) 오전 10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 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eavens

stars

moon

hisfinger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동포사회가 화합하며 기도하자

6.25 71주년, 복음통일 위한 간증과 구국기도회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에배와 복음통일을 위한 간증과 구국기도회가 6월 25일 오후 3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로버트 솔러 목사의 개회기도와 여호수아지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이철민 목사가 기도했으며 최영순 권사가 특별찬송했다.

이날 김은목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대하20:14-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은목 목사는 "전쟁은 마치지 않았는데 전쟁 현장의 증인들은 사라지고 있다"며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와 군사력을 보고 판단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회상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민족을 위해 기도해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에배와 복음통일을 위한 간증과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호 목사가 축도했다.

샘신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순서는 국민의례, 미국과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병만 장로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을 지나면서 남북통일이 시도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걸 보며 기도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수많은 실향민들 아픔과 북한에

서 굶주린 형제자매들을 돕지도 못하는 상황에 합리적인 도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포사회가 기도하고 도우며 화합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송 선교사가 간증했으며 박상원 목사(기드온동

족선교회)가 '6.25전쟁에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열린 3부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박세헌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최학량 목사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사라진 3000여개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윤건상 목사가 '굶주림과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을 위해', 김영구 목사가 '한국에 30,000여명과 미국에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위해', 김학송 선교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북한에 억류중인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메시지를 전한 후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가 주최한 채플린 준비 온라인 설명회에서 조셉 최 채플린이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레이스미션대 채플린 준비 온라인 설명회, 강사 조셉 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 규남 박사)는 채플린 준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6월 21일 오전 11시 줌으로 열었다. 이날 조셉 최 채플린이 강사로 초청됐다.

최 채플린은 "원목사역은 특수사역이다.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뜻을 헤아려야 한다"라며 "교회사역을 회피하려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소개했다.

최 채플린은 "채플린은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의 영적 리더가 아닌 비 종교단체의 영적 리더를 말한다"며 "감옥, 병원, 호스피스, 경찰서 등에서 사역하는 채플린이 있으며, 상하원의원을 위한 채플린도 존재한다. 채플린은 대부분 군대, 감옥, 병원 등에서는 직원으로 고용돼 사역하게 되며 선교와는 다른 컨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목을 하려면 목회학

을 공부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ATS 기준으로 7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며 "M.Div, CPE 임상목회교육과정 거쳐야 하는데 목사안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목은 병원의 직원이며 주당 40시간 일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사역을 파트타임으로 원목 하프타임으로 사역을 병행할 수 있다"며 "채플린은 병원에서 직원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등 베네핏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역구사역은 환자들에게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714)525-0088(Ext 2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김창섭 목사와 부인이 인사하고 있다

첫 마음 잊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

세계선교교회 김창섭 담임목사 취임예배

세계선교교회는 8대 담임 김창섭 목사 취임예배를 6월 27일 오후 3시에 열었다.

김창섭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요즘은 교회가 많이 힘든 시대다. 세계선교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 나가겠다"고 말하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교회, 온 세계와 함께 행복하게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란다. 첫 마음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님 붙들고 굳건히 나가겠다. 세계선교교회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열어가길 원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곽현우 목사 사회로 열린 취임예배는 신기준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 교역자들이 특송했다. 이날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라'(행20: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문 목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교회론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섬겨야 한다"며 "성령께서 교회 양떼들을 위해 감독자들을 세우셨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 첫

째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주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립 그래프 목사(헛간교회 담임, 선교교회총회 서부지역 부감독) 집례로 취임식이 열렸다. 그래프 목사는 성도들에게 격려사를 한 뒤 취임하는 김창섭 목사의 취임서약 및 본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서약, 담임 목사 취임선포,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이재영 장로와 강석건 장로가 취임패와 꽃다발증정, 참석자들이 취임목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 최운형 목사(따뜻한밤상, 세계선교교회 전 담임), 이은호 목사(수원온누리교회), 김원근 목사(신영주교회), 권오현 목사(만나교회), 박창현 목사(베이커스필드 가주목양교회), 이신일 목사(샌디에고 아미코스장로교회), 원용수 선교사(미안마), 김운기 선교사(베트남), 박진석 목사(포항기쁨의교회)의 축하영상, 최태수 목사(본 교회 은퇴) 격려사, 이재국 장로가 교인대표로 인사하고 김창섭 목사가 감사 인사한 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케더린조 '주님의 손에' 음원출시

찬양사역자 케더린 조의 음원 '주님의 손에'가 출시됐다. '주님의 손에'는 찬양앨범 '고백' 중 세 번째 수록곡이다.

케더린 조는 "작년 이맘 때 한동안 감정의 굴곡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상실감을 빠지기도 했고, 실제 소중한 것을 잃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아무런 주시는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에 화답하며, 다

시 한편, 제 삶의 주인 되신 참종이신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작사 작곡한 찬양이다. 심플한 어쿠스틱 편곡으로 잔잔함 속에 진정성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주님의 손에'는 유튜브 <https://youtu.be/zQova8EsQUg>에서 들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CTS기독교 TV 디지털 공중파 송출

7월1일부터 채널 18.8. 앱, 유튜브 등 24시간 라이브

CTS기독교 TV(회장 감경철)가 남가주에서 DTV(디지털 공중파) 채널 18.8을 통해 7월 1일부터 정식 송출된다.

Direc TV(채널 2092)를 통해 전 미주로 방영돼온 CTS America가 미국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남가주 지역에 공중파방송을 송출함에 따라 더욱 폭넓은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돼 미주내 명실상부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방송사로의 입지를 마련하게 됐다.

동시에 CTS America는 CTS America 앱 Live와 유튜브 Live(cts America), Smart tv(Apple TV, Roku, fire TV, android TV)를 통해서도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CTS America는 2006년 남가주에 설립된 이후 한인 기독교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 유일하게 24시간 복음방송을 전 미주로 전파해왔고, 방송 전문인들과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수준 높은 현지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무엇보다 CTS의 남가주 지역 공중파 송출은 오랜 기대에 대한 부응의 결과다. CTS America 백승국 대표는

"미주에서 한인 인구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남가주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민사회와 빠르게 소통하며 한인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매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TS America는 미주에서도 시청률이 높은 한국 CTS의 대표 프로그램 '콜링캣, 내가 매일 기쁘게, 7000 미라클' 등 CTS본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방영하는 것은 물론 현지제작 비율을 대폭 확대해 한인교계와 이민사회의 주요 소식과 이슈들도 풍성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CTS기독교TV는 현재 한국의 노랑진 본사사역을 비롯해 한국 18지역, 해외 3곳의 지사를 두고 선교방송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미주 CTS America는 남가주 오랜지카운티 플러튼 시에 소재하고 있다 (1025 S. Placentia Ave. Fullerton)

(기사제공: CTS America)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한 여름 성령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새롭고 더 뜨거운 신앙이 되자'라는 주제로 한 여름 성령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이며 일정은 7월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다.

▲문의: (714)446-6200

브릿지교회 설립30주년 페스티벌

브릿지교회(담임 김재호 목사)는 설립 30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일정은 7월 4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소리엘 지명현 목사 찬양간증집회, 11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찬양간증집회, 23일(금), 24일(토) 설립30주년 기념 부흥집회(강사 최홍주 에브리데이교회 담임목사), 25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비전집회(강사 본교회 설립담임 김승련 목사), 오후 4시 설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문의: (800)484-0992

아이에아 연합감리교회 임직예배

하와이 아이에아 연합감리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임직예배가 7월 4일(주일) 2부 예배(오전 11시)에 열린다.

▲문의: (808)488-3018

토렌스조은교회 VBS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VBS가 'Treasured'라는 주제로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VBS 신청은(<https://torrancegcc.breezechms.com/form/gccvbs2021>)에서 하면 된다.

▲문의: (310)370-5500



감사한인교회에서 한여름밤의 축제가 열렸다

감사한인교회 한여름밤의 축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2021 TKC 한여름밤의 축제를 'Together Again, We can'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 오후 6시30분 본 교회 파크랏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었다.

이날 공연은 오버플로우 찬

양팀, 찬양사역자 이정열, 김하나, 로이스 김, 갓스이미지, TKC Women of Hope 등이 출연해 은혜롭고 흥겨운 공연을 선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주최 온라인 청소년 모의유엔대회가 열렸다

유니세프, 흥남철수작전 2개 의제로

한미연합회 제1회 온라인 모의유엔 대회 개최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 송)는 '제1회 한미연합회(KAC) 온라인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대회'를 6월 1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연합회 모의유엔(MUN) 청소년 학생들이 주도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시됐으며, 재외 동포재단, Dwight Stuart Youth Fund, SoCalGas와 김용환 재단에서 후원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했다.

한미연합회 MUN 학생들은 미국,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등 총 6개국을 대표해 유엔의 의사진행 규칙과 절차를 실제 방식 그대로 적용해 스유니세프: 제3세계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스흥남철수작전: 유엔의 대응 조치라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지혁(라치몬트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사무총장 역할로서 회의를 이끌었고 학생들은 담당 국가와 담당자의 입장을 대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친 끝에 첫 번째 의제에서는 미국을 대표한 지니킴(Jeannie Kim) 학생이, 두 번째 의제에서는 맥아더장군을 대표한 매튜 세이(Matthew Hsieh)

학생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유니스 송 대표는 "이번 회의는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부원을 주도하여 처음 열리는 비대면 회의로 3개월에 걸쳐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 진행했기에 의미가 큰 행사"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에 한미연합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학생들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모의유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난 2월 진행된 버클리 모의유엔회의에서 엘리스 문(Alice Moon) 학생과 셸리나 김(Chelina Kim) 학생이 리서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미연합회는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의 참가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부터 고등학교 4학년까지 가능하며, 2021-2022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프로그램 지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2021년 7월 중순부터 전화 (213)365-5999나 한미연합회 홈페이지 (www.kacl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수용인원 30%+’ 예배참석 가능

수도권 교회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교회도 방역 수칙 조정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27일 발표했다.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다.

1단계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만 참석할 수 있다. 4단계는 비대면 예배다. 이때 백신을 1차라도 접종했다면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가령 2단계에서 100인 규모 교회는 30명만 모일 수 있었는데 백신 접종자가 10명이면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

종 완료자라면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 백신을 2차까지 맞았거나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안전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경과한 사람이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비접종자의 경우 교회 소모임은 1단계일 때만 허용된다”며 “2단계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는 한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역체계에 따라 교회도 예배 참석자 수를 조정하고 백신 접종자 정보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예배당 입장 출입구와 좌석을 구분할 계획이다. 이

미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때 성도등록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 달라고 공지했다. 다음 달 4일 주일 예배부터 세 곳의 출입구 중 한 곳은 백신 접종 완료확인 스티커를 부착한 성도만 출입하도록 한다. 예배당 안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도들은 한 칸씩 거리두기 한 채 자리에 앉는다. 미접종 성도들은 최소 1m 거리를 뒤야 한다. 접종 완료 성도만 찬양대를 꾸리고 소모임도 가질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성도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해 예배당 참석 인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랑의교회는 성도들에게 변경되는 방역 지침을 알리고,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해달라고 공지했다. 교회 홈페이지나 로비 데스크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등록하면 성도들의 QR코드에 반영되는 방

한성연 대표회장에게 나성 신민규 감독 선출

제12차 정기총회 “‘한국성결교회’로 명칭통일 협력하자”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가 지난 21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총회장인 신민규 목사를 선출했다. 공동회장에는 지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과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이상문 총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기성, 예성, 나성 소속 임원과 회원 등 79명이 참석해 성결교회 연합체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연은 회칙에 따라 예성,

기성, 나성 순으로 대표회장직을 맡게 되며 공동회장은 각 교단 총회장이 담당한다. 순번에 따라 추대 형식으로 대표회장에게 선출된 삼암동교회 신 대표회장은

“한국성결교회”라는 명칭과 공동 신앙고백서, 로고를 함께 사용할 것과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성과 나성에서는 ‘한국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됐다”며 “기성에서도 이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교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성결 교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 3개 교단이 함께 사용하길 바란다”며 “한성연이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국내 농어촌교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회무에서는 한성연 발전을 위한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의 인원을 늘리는 등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사회복지분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분과에서는 성결교회 신앙선언문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나성 총회에서 후속 모임을

“기독교 이미지 강화·목회자 재교육...”

예장합동 미래대응과 부흥전략 간담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24일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정책전략 개발을 통한 미래대응과 부흥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목사 장로 총대들은 목회자 재교육, 동사목사 제도 신설, 여성안수 문제, 기독교 이미지 강화, 작은교회 부교역자 수급방안 등을 요청했다.

서재철 천안 성실교회 목사는 “목회환경이 급변하는데 목회자 성품 교육과 함께 전임목사

와 후임 목사가 원활한 리더십 이양을 위해 같이 사역하는 동사목사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 사회를 위해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용한 서울 옥수중앙교회 목사는 “2003년부터 2800명의 어린 안부를 묻는 유유배달 사역을 하면서 비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 사역을 하면서 가톨릭이 대사회적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호 목사는 “개신교대 대사회적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비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낙심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총회 차원에서 한국교회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신근 서울 해성교회 목사는 “요즘 대형교회에는 부교역자 지원자가 몰리지만, 농어촌교회, 성도수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는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총회와 신학교가 장학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작은 교회 사역을 실천신학 과목 학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클란 출판사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텝톤

간절한 매달림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르
두란노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두란노서원 213-382-5400
말씀사 714-530-2211

www.koramdeo.com
www.duranno.us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남몰래 흐르는 눈물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주인공 네모리노가 부르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crima)은 유명한 테너 아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아디나가 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며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디나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에 감동하여 부르는 이 서정적인 노래는 사랑의 벅찬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부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녀의 두 눈에서 흘러요.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녀의 가슴 두근거림이 들려요. 내 한숨이 그녀의 한숨과 뒤섞여요.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다릅니다. 눈물샘에서만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신체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에서 스며 나오는 신비한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별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탄식의 눈물, 긍휼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결단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이러한 눈물들은 영과 마음의 눈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말끔히 씻어 냅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자를 나약한 자라고 여깁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하고, 눈물을 삼키며 악착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을 쏟아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한나, 야곱, 다윗, 예레미야,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욥16:20).

bible66@gmail.com

적 가치를 분명

하게 제시해 교회 헌신도가 높은 복음의 골수팬, 부족공동체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복음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준비한 노재경 교육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종교인, 탈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다음세대 교육, 소

그룹 중심의 교

회 등 총회 미래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전략개발팀을 만들고 총회 때 교단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중앙교회, 오후 3시 대구 반야월교회에서도 열렸다.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한국에 재소자들을 위한 교도소 문서선교

2012년, 주님은 문서선교가 한국에 한 재소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국에도 TPPM을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물론입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했다.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나는 기적을 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도소 문서선교를 시작하며 기적을 보았다.

TPPM의 책들은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우선 나의 간증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밖의 책들은 내가 다 번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리고 TPPM에서는 출판된 한글 책들을 한국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흥미롭게도 TPPM의 한글 책 사역을 위해서는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결국 그분들이 현재까지 TPPM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계신다. 참고로, 이제까지 TPPM으로 전달된 기부금의 95% 가량을 한인 분들이 감당해 주셨다. 실제로 미국에서 TPPM으로 한 교회가 한번 정도 보내주는 기부금으로는 많은 양의 책을 출판할 수가 없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한국에 있는 재소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TPPM의 책들이 한글로 번역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한국 분들에게 TPPM의 책들과 사역을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있는 한인 신문사 세 곳에서 TPPM의 책들을 여러 해 동안 신문에 연재해 주고 있다. 현재 연재되고 있는 책으로는 “우울증과 영적 치유의 길”, “내적치유 가이드” 그리고 “예수님과 걷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두 군데 한인 라디오방송에서는 TPPM 오디오 북을 방송하고 있다. 물론 TPPM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문서선교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영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필요하

역을 감당하던 초기에 주님은 내게 영적 리더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영적 치유에 관한 책을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 더불어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 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난 5년간 내적치유 세미나와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게 하셨다. 세미나는 사역자들이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고 더 나아가 그분들이 다른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세미나를 위해 그동안 교도소 문서선교에서 출판한 나의 책들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과 사역자 영성훈련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내게 여러 권의 책을 쓰게 하신 이

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날마다 들었다.

현재는 작년에 줌으로 내적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미국의 성도님들이 목상을 날마다 들고 있다. 참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총 500일의 목상을 담고 있는 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실제로 이 목상집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독자들에게 잘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쓰여진 목상집은 독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

다. 또한, 나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사역 프로그램 박사과정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나는 박사과정을 마치며 “정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TPPM이 어떻게 교도소 재소자들과 일반인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나는 논문에서 교도소 문서선교가 어떻게 정의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내가 받은 교육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직장에서도 상사였던 라스의 배려가 있었다. 그는 내가 학위를 받기까지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3년

교도소 문서선교 출판 책들로 제자훈련과 사역자 영성훈련 계획 미주내 한인들 후원으로 한글판 번역 가능, 한국 재소자에 도움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역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재소자들을 돕고자 시작된 한국어 책 사역이 한국 분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게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리더 양성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

유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내적치유 가이드”는 영어 강의, 한국어 강의, 이란어 통역이 들어간 강의 형태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 밖에 책들 또한 영어, 그리고 한국어 오디오 북의 형식으로 유튜브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더불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내적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녹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TPPM)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수없이 보고 있다. 책들이 다른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곳에 재소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

간 일년에 한달씩 센터기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다. 프로그램 부서에 상상되었던 수잔 알고 역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관한 많은 정보와 기록을 조사해줌으로 나의 논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0강 / 이삭(창세기 22, 26-28장) I

이삭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저간 과정, ‘부르심 이전’부터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죄인의 삶’을 사는 여정을 지나 마침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그네로 죽음을 맞이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는 안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삭입니다. 이미 서론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그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은 그 up and down의 과정이 거의 없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가장 유사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삭으로 들어갑시다.

‘부르심 이전’의 이삭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삭을 말씀하셨습니다(창17:19,21). 이삭의 삶은 ‘부르심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예고되었고 그 이름도 받았습니다(창17:19/마1:20,21). 둘째, 이삭과 예수님 모두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셋째, 이삭과 예수님 모두 독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독자인 것입니다(창22:2/요1:14, 3:16).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에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어떠한 ‘선’과 ‘의’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이며(롬5:8)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이고(렘1:4,5) 창조 전이었습니다(엢1:4,5).

그리고 불가능한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를 시작으로 리브가(창25:21), 마노아의 아내(삿13:2-5), 한나(삼상1:5,19,20), 수넵 여인(왕하4:8-17), 엘리사벳(눅1:5-25, 57-66)에 이어 마리아(눅1:26-35, 2:1-7)에게로 이어져갈 것입니다.

‘부르심’ 받는 이삭

이삭의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같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중간에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삭의 경우는 ‘모태신앙’과 같습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이삭

이삭은 삶은 큰 변화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미 이삭과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up and down을 반복하였고 이삭은 그 이후의 삶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앞선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이삭에게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 때에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놀림(창21:9)을 받았을 때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온유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



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고(창22:9,10) 예수님도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골2:8).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이 보이는 먼 거리에 서부터 모리아산을 오를 정도의 나이라면 최소한 10대 후반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

이삭은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에 가장 유사한 삶 살아 up and down 과정 없이 본향 향하는 나그네 삶으로 연결

다. 이삭이 노력해서 만든 성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단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사53:7).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

이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모리아산의 여정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가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나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고(창22:6/요19:17) 이삭의 성품을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도 죽기

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에 가까운 것입니다. 힘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삭이 더 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번제의 자리에 아무 저항도 없이 결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삭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자’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수차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은 이삭의 순종은 ‘이삭 자체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불가능한 출생 중에 태어난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드러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번제와 같이 드리실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죽이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만나야만 합니다. 절대 ‘아브라함을 본받자’ 혹은 ‘이삭을 본받자’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이삭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창25:20) 이삭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중동 아시아는 문화적으로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결혼이 여부가 됩니다(창26:12,13).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삭에게 주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그 과정에 주시는 ‘맛보기’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것(막1:35-39/눅4:42-44, 19:10/요3:17, 6:39, 12:47, 20:30,31)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것을 맛보기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삭

이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이후로 다시 기근이 들었습니다(창26:1). 이삭 역시도 나일 강으로 인하여 기근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 이집트로 가까운 지역인 그랄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

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창26:2-5).

먼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여(창26:6)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고 하나님이 주신 중동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창26:12,13).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삭에게 주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그 과정에 주시는 ‘맛보기’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것(막1:35-39/눅4:42-44, 19:10/요3:17, 6:39, 12:47, 20:30,31)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것을 맛보기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마리아가 받은 복(눅1:26-30)찬473장

하나님은 구속 성취의 도구로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그는 특별한 소명,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다윗 가문의 마리아를 찾아가 그 사명을 준 것은 구속을 성취하는 첫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받았습

니다. 가브리엘이 그를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 선언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린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주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마리아가 복을 누리는 원리인 사명,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화 가브리엘이 전한 성육신(눅1:31-35)찬94장

가브리엘을 통한 도성인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첫째, 구속성취의 구속자로 오십니다. 예수(여후수아, 호세아)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사함 받음을 뜻합니다. 그만이 구속을 성취하신 유일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 가문의 경건한 여인을 통해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것처럼 수 천년이 지나 신실하게 성취됨은 너무 기이합니다.

셋째, 야곱 집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신구약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의 출생과 사역을 이처럼 신실하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수 동정녀 탄생의 성취(눅1:34-35)찬104장

구속 성취의 첫 관문인 동정녀 탄생에 관한 가브리엘의 약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된 창조였습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어진다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속 성취를 위한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딤후3:16).

목 마리아의 믿음(눅2:36-38)찬121장

가브리엘의 뜻밖의 방문과 일방적인 선포는 마리아에게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기회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계시를 알기위해서 반문했습니다(34). 계시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그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위하여 믿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진정한 확신은 의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납니다. 둘째,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믿었습니다(37).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큰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겸손하게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38). 그녀는 주종관계로 완성되는 언약의 복을 잘 알고 그 길을 감으로 이 큰 일을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금 엘리사벳의 축원(눅2:39-45)찬114장

이 일 후 곧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그녀는 성령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41). 한 경건한 여인이 그녀는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 되었습니다.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는 주의 말씀이 친히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44). 유사한 경험 속에 그녀는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셋째, 믿은 자가 복됨을 선포했습니다(45).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작은 증거들을 보고 믿음 자, 마리아를 축원했습니다.

토 마리아의 찬양(눅2:46-50)찬109장

다른 면으로 마리아는 그 위대한 일에 관해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첫째, 영혼으로부터 주를 찬양했습니다. 영혼의 찬양은 진실과 사랑을 경험한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나감은 오직 성령의 인도입니다.

둘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48). 현실의 비참이 도리어

큰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시 구속주가 인간이 되어오는 사건은 참되이 찬양할 일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가집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2)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필자가 학교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흔히 좌절된 사람을 위로하기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곧 성경적인 교훈이기도 하다.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학습가능성’(Learnability)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다윗왕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그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2차 시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법계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다(삼하6장).

다니엘 4장에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바로 느브갓네살 왕이다. 그는 44년간 왕위에 있었는데(606-562 BC) 그 대부분을 전쟁으로 보냈다. 605 BC(앗수르의 정복을 시작으로 유다(586 BC), 드로(573 BC), 그리고 애굽 (568 BC)을 차례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바벨론 건설사업에 몰두하였다.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 함락시켰을 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갔고 유다 사람들 약 1만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참 잔인한 사람이었다. 꿈을 꾸어 다니엘이 해석해준 이후에도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은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 불에 던져 넣은 자가 바로 그였다. 그 후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이 경고했

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잠16:18).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울을 보자. 그는 왕이 되기 전 지극히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교만하게 변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뜻을 떠나 자기 임의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만을 도모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야 말았다.

다시 한번 다니엘로 돌아가 본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이란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이 중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느브갓네살 왕이 4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 아마도 그 꿈은 2장에 비해 비교적 해석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학습가능성: 실패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 경험 하나님이 용기 근원, 역사속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믿어야

만 그의 교만은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꾸 꿈대로 그는 7년간 들집승과 함께 지낸 후 제정신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바로 7년간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끝나자 비로소 그는 변화되었다. 다니엘 4장이 바로 그의 고백이다.

마지막에 돌아와 회개하며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일생을 허비한 후 죽을 직전에 하나님 품에 안긴 어느 방랑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실패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는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다. 결국 다니엘 4장은 왕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교만과 이를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을 더 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분이신 분이신 사실이다. 결국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과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 그는 밤새바와 간음 후에 잘못을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실수와 잘못은 그만큼 값있는 수업료가 된다.

왜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가? 바로 교만 때문이다. 다니엘 4:30에 느브갓네살 왕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의 자세를 보라.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모든 성취를 이루었다는 자만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

아마도 알면서도 감히 왕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때문 아니었을까? 왕의 몰락을 전해야 하는 다니엘의 입장이 어찌 쉬웠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단4:19) 이유를 알게 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꿈의 내용 때문이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 몰락하니 자신 역시 패망할 것을 예견하여 번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가감 없이 정직하게 왕에게 이야기한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겸손한 자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한다. 그리스도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영웅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용기를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들과 용기 있게 맞섰고,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며 왕 앞에 나아갔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스테반 집사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기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한다.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기록이다.

hlee0414@gmail.c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집짓기에 대비한 건축가의 신앙 (3)

NEEDS-Determine Needs
How much money, Quality

사람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만든 면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죽으면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김으로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직접 지으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지금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하나님의 진리도 그리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가 거쳐갈 곳 없어 너에게서 떠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1) 믿지 않는 자 (2) 믿다가

타락한 자 (3) 믿기는 믿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므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PROBLEM-State the Problem
What are the significant condition and general design of the building should be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

FOUR CONSIDERATION

FUNCTION	(1) People	(2) activities	(3) relationship
FORM	(4) site	(5) Environment	(6) quality
ECONOMY	(7) initial budget	(8) operational costs	(9) Lifecycle Costs
TIME	(10) Past	(11) Present	(12) Future

가므로 사탄의 그늘에서 살면서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지만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은 찌들고 찌들었으므로 주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육신의 습성은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는 뒤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기서도 말한 것 같이 State the Problem 즉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모든 문제를 다 들어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 받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하십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망과 거짓,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

독/자/투/고

호기돈 장로 (은퇴 건축가)

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본 받아 주님의 입장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도록 변화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더욱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거대한 생활을 할 때, 이웃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웃의 입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도 변화의 삶을 살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1900년쯤 미국의 건축가

Louis Sullivan은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Form follows Function"(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집의 겉모양 Form(형태)은 Function(평면의 용도, 구조, 동선)에 따라 이어지게 된다. 이때 Function과 Form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밸런스를 맞추어 지으면 아름다운 건물의 가치(건강, 복지, 안전)를 보여줄 수 있듯이 교회도 예배의 본질인 기도와 찬양,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운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세워져야 할 텐데 이러한 조직과 운영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들어가 제 멋대로 세워질 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재정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므로 쫓겨나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폼(Form)만 잡고 다니게 될 것이므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교회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끝>

donho5538@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5.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가정선교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마16:26),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눅15:7, 10).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한 가정, 한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원구원에 있다면 가정선교와 가정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문제와 가정선교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한 핵가족화 현상, X세대와 Y세대가 없는 방향과 가치,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와 그로 인한 베이비시터(Baby-Sitter) 자녀양산, 부모에 대한 효도관 상실과 심각한 노인문제, 인간성 상실로 인한 열기적인 살인사건과 끔찍한 폭력범죄, 성적 자유화로 인한 혼외정사, 원조교제, 부부교향 사회화(Swapping),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남편의 전업주부(Mr. Mom) 증가, 여권상위로 인한 부권(아버지의 권위) 상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급증, 미혼모와 사생아 양산, 인신매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가정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2. 가정선교의 당위성

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파괴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회가 심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이 가정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이라고 불리어왔지만 오늘과 같은 극심한 가정파괴와 상실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가정사역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선교(Family Mission)가 깊이 연

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고 했으며,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10)고 했습니다. 이는 선교의 우선순위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4.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하나님은 가정선교를 통한 가족과 가정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파괴된 가정회복을 위해 가정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 온전한 가정선교위해 가정지킴이,가정과수꾼,가정선교사로

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성경적 가정선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기적인 살인사건과 끔찍한 폭력범죄, 성적 자유화로 인한 혼외정사, 원조교제, 부부교향 사회화(Swapping),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남편의 전업주부(Mr. Mom) 증가, 여권상위로 인한 부권(아버지의 권위) 상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급증, 미혼모와 사생아 양산, 인신매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가정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

은 인류가 가정선교를 통하여 전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이방인 가정구원에 대한 성경적 사례를 보면, 구약에서 기생 라합의 가정(수2:18-19), 룻의 가정(룻1:4), 욥의 가정(욥1:1)과 신약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행10:2,24),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행16:14-15), 빌립보 간수의 가정(행16: 31-34)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정선교는 가정파괴를 도모하는 사탄의 말세적 작전에 대한 최선의 방비책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온 인류의 가족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선교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g.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5:10 수요전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걸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www.p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hungdochurch.org 309 State St., Kensington, NJ 070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영양: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전 영양: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30 새벽예배: 오전 5:45 찬양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척 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inistry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후 1:50(토) 주일학교 오후 1:50(토) 청년예배 오후 3:45(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6:00 Tel: (718)8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특별기도: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화요일(매주)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vo.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9: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5회 결의문

"본 교단 제105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헌의안 (헌의자:남평양노회 목사총대 박광재)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실사 후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주후 2021년 5월 25일(화)

총 회 장 소강석 목사 | 서기 김 한 성 목사

예장합동총회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실무위원 박광재 목사 위촉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현장에서 100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1000여 명의 네티즌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소위원장 배광식 부총회장으로부터 박광재 목사가 미주중부노회신설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귀하를 제105회 총회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총회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충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후2021년06월2일(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총회 총 회 장 소강석 목사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위원장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미주중부노회 신청자격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1. 예장합동총회소속 총신 신대원 출신으로서 본국 총회에 소속한 노회로부터 강도사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조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
2. 예장합동총회소속 총신 신대원 출신으로서 본국 총회에 소속한 노회로부터 강도사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조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
3. 타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금번 기회에 예장합동총회에 소속하여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조직교회 또는 미조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
4. 3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헌법 정치15장13조에 입각하여 준회원으로 받되 총회가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부터 정회원의 신분을 취득합니다.
5.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2중 국적을 소유하고 계시듯 현재 우리 교단총회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목회를 허락하고 있는 까닭에 현재 소속하고 있는 미국노회나 총회를 탈퇴하지 않고도 2중 교적을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노회 차원에서 강구할 것입니다.
6. 미주중부노회에 가입하실 목회자님들과 지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노회에 가입하였다가 피치못할 형편과 사정이 발생하여 헌법에 명시한바 담임목회자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동의회를 열고 타 교단이나 또는 타 노회로 이거하거나 이명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지교회에 대하여는 연제라도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청원안을 허락하고 기쁨으로 보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종료마감 시한인 주후 2021년 7월20일에서 30일까지 구글인터넷 미주중부노회 사이트 www.mijoojoongbu.org 에 들어가셔서 가입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들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총회본부 담당자인 조미예 차장 (lim4893@hanmail.net) 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오나 형편에 따라서는 저의 이메일 holylot.naver.com 으로 보내주시던지 또는 전화주시면 신속하고도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락처 박광재 목사 한국전화 010-7272-0691
미국연락처 김여영 도우미 미국전화 213-505-4275

미주동부노회와 서부노회의 회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주중부노회를 새롭게 신설 조직하는 성사업은 제104회 총회와 제105회 총회의 2년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까닭에 이 중차대한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훼방하지 마시고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는 가족공동체 애를 발휘해서 기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신설조직할 미주중부노회는 먼저 조직된 형님과 같은 미주동부노회와 미주서부노회에 절대로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양노회에 가입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동문들과 교회와 노회에서 이명을 받거나 가입을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보다는 50배나 큰 나라인 미국의 경우 한국총회에서 지역을 나눈 일도 없고 앞으로 그럴가능성도 없으며 이번기회는 본국총회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총신 출신 동문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오니 이러한 미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지역을 초월하여 양 노회를 복구할 당시 목회자 개인과 교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양노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금도 본국총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동문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인 프로젝트" 라고 여기시고 관용함으로 이해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미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차대한 지상과제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오나 강도로 돌변하여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마시고 차라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슬그머니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살롬!

주후 2021년 7월1일(목)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실무위원 박광재 목사배상